

“IT+과학기술 대중화 선도를 위한 MOU체결”

(국립과천과학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미래 IT+과학기술 꿈나무 양성을 위한 기틀 마련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9월16일(목),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미래 전자 IT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과학기술임을 공유하고 이를 국내 과학기술의 대중화로 선도하기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간에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미래 전자 IT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디지털리더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영재교실', '디지털 창의성 경진대회'의 공동운영과 함께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과학기술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콘텐츠 등 인프라 공동활용, 전시·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의 상호 활용,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전자 IT 및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영재교실'에 대한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연말에 '디지털리더 창의성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해 학생 및 지도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IT+과학기술 대중화의 안정적 기반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라나는 우리 전자IT+과학 영재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학기술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협약으로 서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동반자 및 차세대 디지털 리더의 육성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PL지원센터 제5기 분쟁위원회 출범”

– 제17차 분쟁위원회 개최, 변승남 교수 위원장 선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PL지원센터는 지난 9월 29일 제17차 분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기 분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이날 제5기 분쟁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경희대학교 변승남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2012년 6월까지 임기 2년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분쟁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제품 분쟁 및 위해 사례 현황’에 대해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신국범 차장이 설명회가 있었고, 이어서 PL지원센터의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PL지원센터는 지난 8월 까지 총 225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확대사고는 27건, 품질사고 18건, 제품불만이 8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PL지원센터는 지난 2002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 소비자와 전자제품 제조업체간 교량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 제17차 전자제품PL지원센터 분쟁위원회 〉